

지역 소식통

부안군 산림조합, 추석상 차려드리기 현물 기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29일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한동일)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의 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현물(15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명절 전까지 독거노인 등 15명의 대상자 선정해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과일, 국 재료 등을 포함한 선물세트(10만원 상당)를 대상자 가구에 내달 12일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세준 조합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작은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을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해주시는 부안군 산림조합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자녀가 없는 홀몸 어르신 등 필요한 대상에게 선물 잘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보건소, 벌초 시 벌 쏘임 등 주의 당부

고창군보건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작업 시 벌 쏘임, 뱀 물림, 진드기 물림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의를 당부했다.

고창군 보건당국은 올해에만 관내 벌 쏘임 사고 494건, 진드기 매개 감염병 22건을 확인했다. 벌초 작업 전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향수 등 자극적인 화장품을 자제하고, 밝은 옷, 긴팔 옷을 착용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하고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

이외에서 활동할 때는 반드시 긴팔 옷, 장화, 장갑 등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풀밭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휴식 시 돛자리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세탁하기,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이학수 정읍시장, 행안부 방문...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 피력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시의 역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1차 통과함에 따라 직접 PPT 발표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창과 부안 군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도 22호선과 국도 29호선이 만나는 지리적 이점도 부각시켰다.

이번 공모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시가 추진하는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표에는 정읍시를 비롯해 부

산시, 증주시, 안동시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2~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9월 초에 발표된다.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송금현 부시장은 국가유사상을 방문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20억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속가능발전 실무자들, 정읍서 지역소멸 해법 모색

'SDGs 영·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 성료, 사례 공유·실행 가능한 의제 발굴 등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영·호남, 제주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정읍에 모였다.

정읍시는 29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SDGs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를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전남,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사례를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의 경험을 상황극으로 표현하고, 그 해결 과정을 직접 듣는 인터뷰도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포럼에서는 일본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을 추진한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함께 논의하며 국제적 모범사례를 탐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멜론, 추석 앞두고 출하·배송 한창

대한민국 멜론의 명대사 '고창멜론'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출하·배송이 한창이다.

29일 고창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인 '고창마켓'과 '고창황토배기유봉' 등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추석 선물용 멜론 배송이 시작됐다.

올해는 고창멜론의 입소문에 신규 주문자들이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마켓 관계자는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른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주문한다"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웃음지었다.

현재 배송되는 멜론은 한달 전부터 예약·주문된 멜론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주문하면 추석 연휴전에 최고급 멜론을 받을 수 있다.

늦여름 전국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을 꼽으라 하면 단연 고창멜론이다. 고창 멜론은 미세털과 원적외선이 풍부한 환경에서 재배되며 안정된 재배 기술과 많은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 또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좋아 직거래 재구매율이 80%가 넘는 농가도 있을 정도다. 그만큼 고창 멜론을 먹어본

사람은 계속 찾는다.

고급과일이면서 재배가 까다로운 멜론은 결만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거미줄 같은 멜론 껍질의 네트워크는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가 아물면서 껍질을 더욱 단단하게 해 속살을 보호한다. 고창멜론은 모양이 둥글고 그물 모양의 굵기·간격이 일정하게 잘 발달 돼 있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협력과장은 "고창군은 높은 당도와 탁월한 식감으로 수입과일을 압도할 수 있는 명품 멜론을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맛있는 고창멜론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맞이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9월 특별할인

추석 맞이 할인을 최대 15%까지 · 구매해도 100만원까지 상향

고창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해도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여 9월 한달간 톨론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고창군은 9월30일까지 한달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할도를 기존 월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높인다.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소보다 할인율이 8%상향된 15% 할인 판매하여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다만, 지역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

한다. 또한, 고창군 착한기업협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한도가 150만원인 만큼 100만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충전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성현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협 정읍시지부, 지역기업 금융지원 협약

정읍시와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에 의거 추진된 것으로, 시와 NH농협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내달 9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특별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NH농협은행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기업별 직전연도 매출액의 20%이내, 금리: 기준금리+1.66%)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 대출에 따른 최종 금리 중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시청 기획예산실로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새마을부녀회, 시군회장 워크숍 부안군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회장 강귀자)는 각 시군 부녀회장 생동감 워크숍을 지난 28~29일 2일간 부안군 위도면과 변산면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시작, 화합과 소통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을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도지회 및 시군 부녀회장 간 정보교류 및 화합으로 조직 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14개 시군 부녀회장이 산·물·바다가 아름다운 부

안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뽐내는 위도를 방문해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진리 대월 습곡과 주상절리를 탐방하며 최만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우리 지역의 지질과 문화, 생태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위도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회 고송도치شم 위도상사화축제를 맞아 위도면 일원에 만개한 순백의 상사화를 감상하고 위도 치유의 숲을 방문해 숲길 걷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